

규모 줄이고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정체성 찾는다

내년부터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광주비엔날레재단 대신 별도로 꾸려지는 추진사업단이 주관하게 된다. 또 예산이 대폭 줄어들면서 행사 기간과 규모도 축소된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광주디자인센터 내에 별도의 사업단을 신설하고 경험이 풍부한 광주비엔날레재단 인력 등 전문가들을 파견하는 형식으로 꾸려진 별도의 추진사업단이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진행한다.

지난 2005년 첫 행사를 시작으로 지난 해까지 모두 5차례의 행사를 치른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그동안 ‘예술’과 ‘산업’ 사이에서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 최근 개혁 작업에 들어간 광주비엔날레재단과 광주비엔날레 혁신위원회에서도 재단 경영 효율화를 위해 광주시 위탁 사업인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차례 제기돼 왔다.

특히 대회 2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역 경제와 연관되는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줌에 따라 별도의 조직으로 행사를 추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본연의 정체성을 찾겠다는 것이 광주시의 생각이다. 기존 50억원(국비 20억 원, 시비 20억 원, 민자 10억 원)이던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예산이 내년부터는 23억원(국비 9억 원, 시비 9억 원, 민자 5억 원)으로 축소됨에 따라 행사 규모가 대폭 줄어드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광주시는 남은 예산 22억원(국비 11억 원, 시비 11억 원)은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별개인 디자인 개발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이다.

제1~4회 행사는 50억 원의 예산으로 광주비엔날레재단이 행사를 치렀고, 제



내년부터는 광주디자인센터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추진사업단이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주관한다. 사진은 제5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서 선보인 김백선의 ‘올드 앤 뉴’.

“예술비엔날레 차별화 실패…지역 연계 성과 없어”

예산 50억→23억…별도 추진사업단서 주관키로

국제 위상·네트워크·운영 노하우 등 타격 우려

5회 때는 광주비엔날레재단과 광주디자인센터가 공동주관하면서 각각 본전시(26억 원)와 산업화 프로젝트(24억 원)를 추진, 연계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축소되는 것은 내년이 처음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총감독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 큐레이터를 추가로 선임하고, 주요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지역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총 사업비가 줄어들면서 그동안 본전시, 특별전, 학술행사 및 이벤트 등으로 구성됐던 광주디자인비

엔날레 규모 축소도 불가피하기에 행사 기간도 30일 이하로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당초 17일간만 열기로 했던 행사 기간을 광주비엔날레재단 측에서 늘리면서 전시 비용보다는 부대비용과 운영비에 과다하게 투자해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2005년 열린 첫 행사에는 17일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모두 28만 8513명(유료 21만5881명)이 다녀갔다. 하지만 2회 30일간 25만1220명(유료 22

만6887명), 3회 48일간 20만2053명(13만4214명), 4회 52일간 25만6802명(19만7741명), 5회 59일간 21만151명(유료 16만4823명) 등 대회 개최 일수는 늘었지만 관람객은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든 역효과를 낳았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그동안 국제적인 행사로는 성장했지만 광주비엔날레와 차별화를 실패했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에서 제각각의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심재진 전 LG전자 디자인연구소 소장은 “디자인은 상품이기에 사용자에게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그동안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비엔날레’라는 타이틀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예술성만을 강조해 산업적인 측면과는 괴리감이 있었다”며 “그동안 행사는 디자인의 기본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행사 규모가 축소되고, 주관단체가 바뀌면서 그동안 쌓아온 위상과 운영 노하우, 국제 네트워크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디자인 산업과 전시를 연계하는 당초의 취지와 맞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비엔날레’라는 용어 자체가 미술계 행사에서 쓰이는 용어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행사 명칭도 새롭게 바뀌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포천 전 광주비엔날레재단 이사장은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디자인의 참신한 미학적 담론을 창출해내겠다는 의도로 출발한 행사”라며 “세계 최고이자, 세계 최고인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광주비엔날레재단에서 분리해 예산과 규모를 줄이고, 별도의 추진사업단을 구성한다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바람 그리고 놀다’

바람처럼 소통하며… 살기

제회갤러리 18일까지 윤남웅전

우리의 삶을 하나의 놀이로 생각해보면 어떨까. 짜증나고 답답한 현실을 하나의 즐거운 놀이로 생각하면 삶 자체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남도의 정서를 자신만의 독특한 색채와 형식으로 담아내고 있는 윤남웅씨의 개인전이 오는 18일까지 광주시 동명동 제회갤러리에서 ‘바람 그리고 놀다’를 주제로 열린다.

윤씨는 이번 전시에서 일상을 유쾌하고 해학적으로 풀어낸 화화, 설치·입체 작품 등 모두 30여 점을 선보인다.

다소 어눌해보이는 작품 속 캐릭터와 이미지들은 관람객들에게 왤چه 모를 미소를 선물한다. 특히 우리가 잊고 살았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 사라져 가는 우리 것들에 대한 향수 그리고 정을 엮을 수 있다.

특히 골판지, 석고, 지점토, 아크릴 등

다양한 재료들로 그린 부조 형식의 입체 그림과 설치 작품들이 새로운 즐거움을 주기도 한다.

주제 ‘바람 그리고 놀다’는 틈과 틈, 물과 물, 공간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는 바람처럼 많은 이들과 소통하고, 삶을 놀이처럼 즐겁게 살고 싶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작가는 “전라도는 지역적인 ‘맛’이나 ‘냄새’, ‘색감’ 등 감출 수 없는 본성이 있다”며 “전라도 사람들의 맛깔스러운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전남대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뒤 중국 노신미술학원에서 석사를 마친 윤씨는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에 참여했으며, 제6회 신세계미술제 대상을 수상했다. 문의 062-222-9301.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놀이·글쓰기 배우며… 놀기

광주문화예술교육센터 ‘놀넌놀넌’ 11일까지 참가자 모집

문화예술교육 기획자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놀넌놀넌’이 광주문화재단 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열린다.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하는 ‘놀넌놀넌’은 오는 15일부터 19일(월요일~금요일, 14시~16시)까지 문화예술교육 기획과 진행 경험이 있는 기획자 및 강사, 예술가,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놀이·글쓰기 워크숍과 파주출판단지 답사를 진행한다.

‘놀넌놀넌’은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실천가로서 책임감과 의무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바쁘게 살아온 이들에게 휴식과 놀이, 배움의 즐거움을 전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놀이 예술가 고무신 선생님의 ‘놀이로 노는 것’, ‘몸으로 놀자’ 강의 통해 놀이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잘 노는 방법에 대해 배운다.

또 카피라이터 정철씨의 ‘머리를 9라’ ‘연필사용법’ 강의에서는 발상의 전환을 꾀하는 방법과 쉽고 재미있는 글쓰기를 논한다. 이후 1박 2일의 여행에서는 파주출판단지를 방문해 보리출판사 윤구병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오는 11일까지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메일로 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모집정원은 30명. 문의 062-670-5764. /오광록기자 kroh@

흥겨운 요들의 세계로

광주엔시안호텔클럽 37주년… 13일 정기연주회

광주엔시안호텔클럽이 창립 37주년을 기념하는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13일 오후 6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즐거운 요들, 행복한 우리’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연주회는 신일호씨가 지휘를 맡았으며 광주엔시안 합창단 30여명이 멋진 화음을 선보이며, 플루메리아 우쿨렐레 앙상블, 광주포크싱어 1세대 국소남이 특별 초대된다.

알프스 민속음악의 대표적 악기인 ‘알프혼’ 연주로 무대를 열며 ‘카우벨’로 ‘백년

의 약속’을, 핸드하모니카로 불리는 ‘오르겔리’로 ‘장고귀몰이’를 연주하며, 지예유치원 원아들이 귀여운 폴카댄스로 협연한다. 또 톱으로 슈베르트의 ‘아베마리아’를 연주한다.

전체 합창곡으로 ‘숲의 요들’과 ‘웨그스의 노래’ ‘향기로운 꽃’과 캐롤을 부르며 광주엔시안의 블루그래스(미국 민속음악) 연주팀 ‘포키벤드’가 ‘Red wing’과 ‘징글 벨’을 연주한다.

또한 남성솔로와 남성중창, 혼성 트리오



등으로 구성해 ‘집 잃은 제비’, ‘요들은 기쁨’, ‘아름다운 산장’, ‘쿠스탈 요텔’, ‘두 마음’ 등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에는 광주엔

시안 OB 회원들도 참여한다. 전석 초대. 호텔클럽(www.jodel.kr) 문의. 010-3625-8489. /김미은기자 mekim@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원적외선티터, 대형제습기
펠릿온풍기, 건조기, 범씨온탕소독기

기존 난방비 대비 60% 절감효과

펠릿 온풍기외 2종
비닐하우스, 식당, 상가, 유치원, 사무실, 전원주택, 펜션 등

건조기외 2종

원적외선 히터외 11종

대형 제습기외 2종

이동식 에어컨외 11종

범씨 온탕 소독기외 5종

무등산업

(062) 372-7585
010-3601-7701

사·군 취급점
선착순 모집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130만원

신제품
59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미아트 상가1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대산프리모남가발

500m

대산프리모남가발